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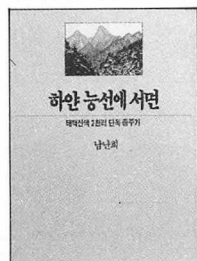
출협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11종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0년 6월~7월분으로 다음 11종의 도서가 뽑혔다.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300부씩 모두 3300부를 구입, 전국 각지방의 문화원 118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공공도서관 등 300곳에 배포했다.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위원은 다음과 같다.

△문학예술=남미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신상철(아동문학가) △과학기술=현원복(과학기술연구단지 대변인) △종교철학=이은봉(덕성여대 교수) △역사=하현강(연세대 교수) △인문사회=송복(연세대 교수)

하얀 능선에 서면

남남희 지음



국내최초로 2천여리에 이르는 태백산맥의 줄기를 따라 단동종주에 성공한 여성알파니스트 남남희씨의 체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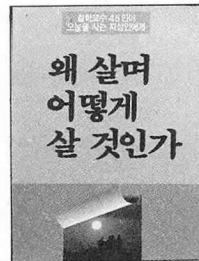
지난 84년 1월1일부터 3월16일까지 76일간에 걸쳐 부산 금정산에서 강원도 진부령까지 추위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 인간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룩해낸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식량공급과 장비교환을 위해 지원대나 산사람들을 만나기는 하나 다시 철저히 혼자서 떠나야 하는 산행길의 고통과, 끊임없이 떠오르고 정의내려졌던 인간과 자연과 삶과 역사에 대한 사색들을 담담히 기록, 감동을 전해준다.

수문출판사 / A5신 / 300면 / 3800원

왜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신일철 외 지음



철학교수 45인이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과 존재에 대한 사색의 글들.

“인생은 결코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생과 노력과 좌절과 인내와 시련을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을 쉽게 살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이같은 따끔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이 책은 1부 사람은 왜 사는가, 2부 나는 어디에 있는가, 3부 먼저 뜻을 세워라 의 순으로 구성. 건국대 강영계 교수의 '젊은날의 고뇌와 변민'을 비롯해 숭실대 이삼열 교수의 '발상의 대전환을', 김태길 전서울대교수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등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보탬이 될 훌륭한 글들을 모았다. 동화출판공사 / A5신 / 292면 / 3500원

어머니

전숙희 외 지음



시인 화가 학자 연구배 우등 우리사회의 중견으로 자리잡은 여성인사 25명이 털어놓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회상록. 시대의 온갖 질곡을 안고 여성차별

의 험난한 길을 넘어 고단한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의 숨겨진 모습을 딸들의 고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가부장제사회의 남성우월주의 속에서 홀로히 딸들을 키워낸 어머니들의 '초상'에서 조건없는 사랑의 헌신적인 위대함과 함께 그릇된 여성관 속에서 해방되지 못한 모순을 동시에 발견케 한다.

산하 / A5신 / 290면 / 3800원

한국인의 마음

신중신 지음



참빛 목기 수저 노리개 등 조상들의 손때가 묻고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민물에 얽힌 이야기.

이들 자질구레 한 생활용품들에는 우리선대의 마음과 미의식, 지혜가 오롯이 담겨져

있으며 그 형태와 선, 장식에는 한민족의 보편적인 정서가 배어있다.

여인들의 정결의 표상이었던 은장도, 맹세와 약속의 징표인 가락지, 고혹적인 자태를 뽑내는 흰고무신 등 아낙네들의 소지품에서부터, 좋은 일 곳은 일 등 집안의 경조사에 두루 쓰였던 병풍, 구들목에 놓여서 훈훈한 인정을 풍겼던 화로 등의 생활용품, 장승, 범종, 정자, 다리에 이르기까지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것을 소상히 소개했다.

윤문 / A5신 / 286면 / 3500원

큰미래 그리기

박석준 지음



국내를 비롯한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 실업인들이 보통사람과 달리 뛰어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짧은 일화를 통해 소개한 책.

나운규, 이상재 선생을 비롯해 링컨, 비스마르크, 대처수상, 포드 등 170명에 이르는 유명인의 일화를 담았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삶에 임했으며 단점을 어떻게 장점으로 활용했는지를 밝혔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정신의 지배력을 높인 미래지향적인 인간들로 그들처럼 스스로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자신에 존경심을 가질 것과 성격을 적극적으로 바꾸고 장점을 개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용기있는 삶을 개척하라고 강조한다.

“ 표지디자인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표지디자인을 원하십니까? ”

다물기획에는 출판인들의 노고의 산물인 좋은책이 독자와 만나는 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읽기쉬운 책' '보기좋은 책' '선택받는 책' 만들기를 추구하는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물기획은 애써 만들어진 좋은책과 보다 많은 독자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는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

133-080 서울·성동구 을봉동 10-83
다물기획 TEL/292·4546/294·9639 FAX/294·6443

출판기획

가본

하얀 여백과 신선한 아이디어와의 만남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져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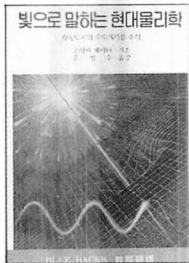
표지디자인
단행본편집·제작대행
광고카피 및 디자인
사보기획·제작
기업체홍보물(카탈로그등)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685-217
TEL: 461-6681

오늘 / A5 / 270면 / 3500원

빛으로 말하는 현대물리학

고야마 게이타 지음 / 손영수 옮김



물리학 가운데서도 시대와 분야를 초월하여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빛'에 관한 이야기.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빛의 탄생에 관한 성경구절을 시작으로, 빛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발달한 근대과학, 그리고 고전물리학에 등장하는 빛의 정체 등 지구상에 인간이 산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빛에 대한 연구 역시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계속 발전해왔음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있다.

전파과학사 / B6 / 182면 / 2000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

배리턴 무어 지음 / 송복 옮김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저명한 역사·사회학자인 저자가 1985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개편하여 펴낸 책이 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의 권위와 불평등의 문제를 미국, 소련,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비교연구하여 권위와 불평등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전 5장으로 이뤄져 “점점 덜 불평등하고 좀더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저자의 강한 의식이 전체적으로 관류하고 있으며, 저자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분석, 독자적인 논의를 전개한 번역자의 논문「권위와 불평등, 그 비판적 성찰」도 실려있다.

청계연구소 / A5신 / 228면 / 3500원

그리운 자작나무

구드룬 파우제방 지음 / 도경재 옮김



독일의 여류작가 파우제방이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쓴 서정시처럼 아름다운 17편의 단편 소설 모음.

전쟁 미경험세대인 어린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놀이를 하고, 막연히 평화에 대해 말할 때 치유할 수 없는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는 전쟁경험세대 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들의 체험을 통하여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구성으로 씌어졌다.

부상으로 다리가 절단되어 구걸을 하며 세상을 비판하던 두 상이용사가 훌륭한 곡예사가 되어 삶의 빛을 찾는 「아름다운 세상은 너에게 있었다」를 비롯해, 「평화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사랑의 꽃병에 자작나무 가지들」 등 작가는 투명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찾아가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은 제시하고 있다.

푸른숲 / A5신 / 192면 / 3000원

일요일의 화학여행

이반 P. 리로프 외 지음 / 김정흠 옮김



화학의 기본인 원소 이야기에서부터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학화제에 이르기까지 '화학상식'의 전반을 재미있는 그림과 함께 쉽게 풀어 쓴 책.

화학책이라 하면 으레 기다란 화학식이나 거북이 같은 6각형의 구조식, 또는 기다랗게 늘어진 쇠사슬 같은 것을 연상케 되는데, 이책에는 그런 화학식은 그림자조차 내보이지 않으면서 화학이 무엇인지, 또 화학이 우리 일상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화학의 지난 역사와 더불어 흥미진진하게 밝히고 있다.

동아 / A5신 / 232면 / 3500원

나의 얼굴 일본·일본·일본

조양욱 지음



국민일보 동경특파원으로 주재중인 저자가 지난 1년6개월여의 일본생활에서 느낀, 변해가는 일본의 허와 실을 소개한 책.

「한국세대 특파원의 新日本탐험」이란 부제에서 보여주듯 도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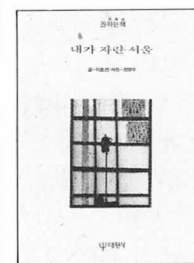
우리 세대의 한국인이 일본의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다는 이 책은 교과서 속의 박제된 일본이 아닌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는 살아있는 피사체로서의 일본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모두 3장으로 구성, 신과 인간의 중간자로 존재했던 천황 히로히토의 죽음, 콧수염을 기른 왕자와 서민처녀와의 결혼 등 토픽류 이야기도 흥미롭게 엮여져 있다.

청한 / A5신 / 332면 / 4000원

내가 자란 서울

어효선 지음 / 한영수 사진



1940년대의 서울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이야기로 구성, 지금처럼 변모되기 훨씬 이전의 서울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아동문학가이며,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서 자란 '서울토박이'인 저자가 당시의 기억을 푸근한 문체속에 실었다. 골목길과 빨래터, 야시장과 골동품가게 등 서울의 풍경을 정감있게 재현했다.

빼죽이는 물지게 소리로 서울의 아침이 열리고 우동 한 그릇에 5전 하고 국화빵 한 개에 1전씩 받던 시절, 군것질거리가 귀해 튀밥장수 주변엔 늘 어린아이들의 군침흘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야기 등 지금은 그 흔적조차 희미한 서울의 풍속도가 그려져 있다.

대원사 / A5변형 / 196면 / 3000원

단색 스캐너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 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읍셋인쇄, 본문~표지까지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 5가 2-23



전문인의 일손!

저희들은 자궁심을 갖고 있는 편집인 직업인으로서의 긍성을 갖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서림기획

번역서 원고 교열, 편집대행, 각종회보, 편집·제작대행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5-10 ☎ 671-1655 · 1656

Illustration and Design

- 표지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편집디자인
- 로고/심볼제작
- 광고기획제작

아이앤디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48-20
경구빌딩 601호 Phone/277-8721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 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121-130 서울시마포구 구수동 21-1 ☎ 718-6260